

# 페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5.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8
IV. 국제신인도 .....	11
V. 종합 의견 .....	13



## I. 일반개황

면적	1,285천 km <sup>2</sup>	G D P	2,152억 달러 (2017년)
인구	31.8백만 명 (2017년)	1 인 당 G D P	6,764달러 (2017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Nuevo Sol (Ns)
대외정책	경제실리외교	환율(달러당)	3.3 (2017년)

- 페루는 남미 중서부에 위치한 태평양 연안국으로,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면적은 한반도의 6배 수준이며, 인구는 2017년 기준 31.8백만 명으로 중남미 제5위, GDP 규모는 2,152억 달러로 중남미 제6위 규모임.
- 페루는 구리, 금, 아연 등이 풍부한 광물자원 부국으로, 원자재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쿠친스키(Kuczynski) 전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과 관련한 자진 사퇴로 인해, 2018년 3월 새로 취임한 비스카라(Vizcarra) 대통령은 정치적 혼란 완화 및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임.
- 페루는 부정부패 만연, 지역간 빈부격차, 불법 코카인 재배 및 마약관련 범죄로 인한 치안불안 등에 따른 사회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페루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안데스공동체(CAN) 등의 회원국으로 역내 경제·사회통합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FTA 체결을 통한 양자간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구 분	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sup>f</sup>
경제성장률	2.4	3.3	4.1	2.5	3.7
재정수지 / GDP	-0.3	-2.2	-2.3	-3.1	-3.3
소비자물가상승률	3.2	3.5	3.6	2.8	1.6

자료: IMF.

#### □ 중남미 국가 평균 대비 안정적인 경제 성장 지속

- 페루는 2010년~2013년까지 5%를 상회하는 고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나, 2014년 중반부터 시작된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투자 감소 등에 따라 이후 경제성장률은 2~3%대 수준으로 둔화되었음.

\* 연도별 경제성장률: 2010년 8.5% → 2011년 6.5% → 2012년 6.0% → 2013년 5.8%

- 다만, 2014년 이후 페루 경제성장률이 과거 원자재붐 (2010년~2013년) 시기 대비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기록함.

\* 중남미 평균 경제성장률: 2015년 0.3% → 2016년 -0.6% → 2017년 1.3%

- 2017년에는 태풍 ‘엘니뇨’ 피해가 극심했고, 중남미 전역을 강타한 부패 스캔들인 ‘오데브레히트(Odebrecht) 사건\*’으로 인해 2016년도 4.1%의 경제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2.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중남미 최대의 건설회사인 브라질의 오데브레히트(Odebrecht)사가 브라질·페루·콜롬비아·베네수엘라 등의 전·현직 대통령 등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사건

- 2018년에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광물 생산량 확대, 재해복구 사업 및 인프라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3% 후반대 경제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페루는 2016년~2025년 기간 동안 지하철 및 고속도로 건설 등 8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음.

## □ 2018년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확대 전망

-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축소 및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등으로 2014년 이후 재정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페루 정부는 대외개방경제의 기초하에 대규모 광산개발 및 인프라 투자 등으로 경기 부양의지를 갖고 있는바, 이에 따른 재정 지출이 필요한 상황임.
- 2018년에도 태풍 '엘니뇨' 피해 복구 및 리마 지하철 확장 공사 등을 위한 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확대되어 -3.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수준 유지

- 페루 정부는 인플레이션 목표(1~3%) 설정을 통해 물가관리를 하고 있으며, 2014년~2016년 기간 중 물가상승률이 3%대를 기록하여 목표물가수준을 다소 상회하였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2017년 중남미 주요국 물가상승률: 아르헨티나 25.7%, 멕시코 6.0%, 콜롬비아 4.3%, 브라질 3.4%
- 페루 중앙은행은 2016년 2월 기준금리를 4.25%까지 인상하였으나, 물가상승률 감소세 지속 등을 감안하여, 2017년 5월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금리를 1.5%(4.25%→2.75%) 하향 조정함.
- 2017년에는 식료품 가격 안정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시현 하였으며, 2018년에는 식료품 가격 안정의 다른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로 인해 1.6%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원자재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페루는 원자재(광물, 수산물 등)가 수출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국제 원자재 가격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원자재가 수출의 70% 이상, 특히 구리 28%, 금 20% 등 광물이 수출의 55%를 차지하고 있음.

## □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 미비

- 페루는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가 미비하여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7-2018) 교통인프라 부문 세부 항목별 순위는 137개국 중 도로 108위, 철도 87위 등임.
- 페루의 인터넷 이용자 수(100명당)는 45.5명(88위)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중남미 국가 대비 낮은 수준임.
  - 1인당 GDP 규모가 유사한 콜롬비아 58.1명(72위) 및 에콰도르 54.1명(75위) 보다 낮음.

## 나. 성장 잠재력

### □ 다양한 광물자원 보유 및 광산업 개발 잠재력 풍부

- 페루는 구리, 금, 아연, 납, 은 등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광물자원 부국이며, 광물 개발지역이 국토의 10%대에 불과하여 향후 잠재력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 2017년 기준 구리 매장량은 8,100만 톤으로 세계 3위, 생산량은 239만 톤으로 세계 2위이며, 금 매장량 및 생산량은 각각 2,300톤(세계 6위), 150톤(세계 7위)임.
  - 기타 아연(매장량 세계 2위, 생산량 세계 3위), 납(매장량 및 생산량 세계 4위), 은(매장량 세계 1위, 생산량 세계 2위) 등도 풍부함.

### □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관광산업 육성 지속 추진

- 마추픽추, 쿠스코 등 잉카문명 유적지 보유, 외국인들의 비즈니스 방문 증가 등으로 관광산업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페루 정부도 산업구조 다변화의 일환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어 관광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음.
  - 2016년 기준 페루의 관광객 수 증가율은 7.7%로 미주지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시현하였고, 전 세계 평균(2016년 3.9%)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관광산업의 GDP 공헌도는 2015년에 4.9%에서 2016년에는 10.1%까지 상승함.
- 2017년 세계경제포럼의 '관광산업 경쟁력 보고서'에서도 페루는 조사대상 136개국 중 51위를 기록하여 2015년 대비 7단계 상승하였으며, 세부 항목에서도 천연자원(4위), 문화자원(24위) 등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함.

## 다. 정책성과

### □ 우호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친시장 정책 지속 추진

- 세계은행에 따르면, 페루의 2018년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는 190개국 중 58위,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멕시코(49위), 칠레(55위)에 이어 제3위를 기록, 타 중남미 국가 대비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특히, 자금조달(20위), 재산권 등록(44위) 부문에서는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페루 정부는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인 광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투자 환경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광산업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페루는 일반광업법(Ley General de Minería)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유로운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경영안정계약\*에 의한 투자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음.
    - \* 세제가 개정된 경우에도 투자자는 투자 승인시점에서 유효한 세제를 적용받게 됨. 다만, 투자자가 개정 세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규 세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페루 정부는 페루가 주요한 광업투자처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광업탐사 분야 연간 투자액을 8%이상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8년은 주력 산업인 광업 뿐만 아니라 ‘엘니뇨’ 피해로 인한 재해 복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인프라 사업 분야에서도 외국 기업들에게 투자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자유무역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FTA 체결

- 페루는 전 세계 50개국 이상과 FTA를 체결하는 등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음.
  - 페루는 10대 교역국과 모두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이 90%를 상회하여 세계 최고 수준임.

## 3. 대외거래

&lt;표 2&gt;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sup>e</sup>	2018 <sup>f</sup>
경상수지	-8,924	-9,168	-5,304	-2,716	-1,584
경상수지 / GDP	-4.4	-4.8	-2.7	-1.3	-0.7
상품수지	-1,509	-2,917	1,887	6,266	5,764
수출	39,533	34,414	37,020	44,917	48,468
수입	41,042	37,331	35,132	38,651	42,705
외환보유액	61,185	60,413	60,524	62,374	66,144
총외채잔액	69,215	73,274	74,651	70,301	70,179
총외채잔액 / GDP	34.1	38.1	38.2	33.5	31.7
D . S . R .	14.7	17.1	19.4	20.9	11.9

자료: IMF, EIU, OECD.

## □ 상품수지 개선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규모 감소

- 페루는 원자재 의존형 수출구조를 갖고 있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은 경상수지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
  - 2014~2015년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광물 생산량 증가에 따라 상품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되었음.
  - \* 구리 수출액은 2016년 87억 달러에서 2017년 120억 달러로, 금 수출액은 2016년 64억 달러에서 2017년 70억 달러로 확대됨.
  - 다국적 기업들의 과실송금, 외채 원리금 상환 등으로 매년 100억 달러 내외의 대규모 소득수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경상수지는 적자를 시현하고 있음.
  - 한편, 해외근로자 송금 등으로 인한 경상이전수지 흑자규모는 매년 40억 달러 (GDP의 2%) 내외로 경상수지 적자 축소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
- 상품수지 흑자전환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2016년에는 -2.7%에서 2017년에는 -1.3% 수준까지 축소되었음.

- 2018년에도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적자규모는 전년대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구리 및 금 가격이 전년대비 각각 10.2%, 3.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수준 유지

- 페루는 친시장 정책에 따른 꾸준한 FDI 유입과 해외 차입 증가 등에 힘입어 향후에도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페루의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됨.
  - 페루는 2016년 기준 중남미 제5위 FDI 유입국으로, 최근 수년간 광업을 중심으로 연간 70억 달러 내외 규모의 FDI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
  - 월평균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은 13개월 내외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페루는 2016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fiscal stabilization fund) 83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단기 유동성 위기 발생 및 경기상황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 등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함.

#### □ 외채규모 증가추세 지속 예상

- 페루는 재정·경상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 등으로 부채가 확대되고 있으나, 외채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7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이 30%를 상회하고 있으나(33.5%), 전년(38.2%)대비 감소하였으며, 2018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페루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17년 25.5% 수준으로, 최근 수년간 증가추세\*에 있으나,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2014년 20.7% → 2015년 24.0% → 2016년 24.4% → 2017년 25.5%
    - \*\* 타 중남미 국가의 2017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브라질 83.4%, 멕시코 53.3%, 아르헨티나 53.4%, 콜롬비아 48.5%
- 최근 수년간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7년 D.S.R은 부채 증가 등에 따라 20%를 상회하였음.



### Ⅲ. 정치 · 사회 동향

#### 1. 정치 안정

##### □ 탄핵정국에서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 존재

- 브라질 건설기업 Odebrecht社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쿠친스키(Kuczynski) 대통령이 2018년 3월 탄핵 2차 표결을 앞두고 사임하여, 비스카라(Vizcarra) 제1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였음.

\* 비스카라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인 2021년 7월까지임.

- 비스카라 대통령은 취임시 부패 척결을 통한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였으며, 권력분립, 균등성장 등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정하였음.

-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여 의회의 협조 하에 보건, 고용창출, 치안 등 핵심 국정과제를 수행할 계획임. 다만, 의회에서 총 130석\* 중 여당(PPK)의 석수는 14석에 불과하여,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케이코 후지모리가 이끄는 민중권력당(FP)이 59석으로 원내 제1당을 차지하고 있음.

- 다만, 야당에서도 정치 불안정이 가속화되어 조기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은 원하지 않으므로, 극한의 정치적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임.
- 페루 산업계에서는 쿠친스키 전 대통령의 사임을 페루 경제의 연착륙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시장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음.

\* 비스카라 대통령의 취임소식이 전해진 날 리마 증시가 0.8% 상승하고, 환율도 US\$1당 3.27솔(Sol)에서 3.25솔(Sol)로 하락하였음.

#### 2. 사회 안정 (소요/사태)

##### □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 만연

- 광업에 대한 높은 성장잠재력, 정부의 친시장 정책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고 있으나, 만연한 부정부패는 페루의 주요 투자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음.

- 2017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페루는 총 180개국 중 96위에 불과함.

- 2016년말 브라질 건설회사 오데브레히트(Odebrecht)가 2005년~2014년 기간 동안 페루 공직자에게 2,900만 달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드러남. 툴레도(2001년~2006년), 페레스(2006년~2011년), 우말라(2011년~2016년), 쿠친스키(2016년~2018년) 등 전직 대통령 4인이 연루된 상태임.

- 특히 쿠친스키(Kuczynski) 전 대통령은 2004년~2007년 자신의 컨설팅회사 웨스트필드 캐피탈(Westfield Capital)을 통해 오데브레히트(Odebrecht)로부터 78만 2000달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의회의 탄핵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결국 2018년 3월 탄핵 2차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였음.

\* 페루 의회는 2017년 12월 쿠친스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 표결을 실시하였으나, 쿠친스키 전 대통령은 2009년 당시 반인권범죄 및 횡령 등으로 인해 2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후지모리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탄핵을 추진하던 민중권력당(FP) 의원 10명이 기권함에 따라 찬성표(78표)가 의결정족수(87석)에 미달하여 탄핵안이 부결됨.

- o 비스카라(Vizcarra) 신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부패 척결 및 정부의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함.

□ 빈곤율 감소추세 지속되나, 지역간 빈부격차는 여전히 상존

- o 페루의 빈곤율은 2005년 56%에서 2010년 31%, 2016년 21%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빈곤율이 매우 높아 지역간 빈부격차가 큼.
- 2014년 기준 페루의 도시 빈곤율은 15.8%이나, 농촌지역 빈곤율은 46.0%로 도시 빈곤율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또한 빈부격차를 측정하는 지표인 지니계수도 1999년 0.56에서 2015년 0.44로 감소하였으나, 불평등 소득 분배 상태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불법 코카인 재배 및 마약 범죄 등으로 인한 치안 불안

- o 페루는 세계 최대의 코카인 생산지로서 아푸리막(Apurimac)강, 에네(Ene)강, 만타로(Mantaro)강 계곡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코카인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약밀매 단체 및 반정부 사회주의 조직인 '빛나는 길(Shining Path)'과 연계되면서 치안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지수에서 페루의 범죄 관련 세부지표 순위는 하위권으로, 137개국 중 조직범죄 129위, 범죄 및 폭력 관련 비용 122위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외교부는 2017년 2월 마약 밀매 조직 활동 등 마약관련 범죄 및 강도 등 강력사건 발생가능성에 따라 페루 여행경보 등급을 상향조정 하는 등 페루의 치안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됨.
- \* 인구 10만명당 살인사건 피해자수 : 2014년 6.7명, 2015년 7.2명, 2016년 7.7명
- 비스카라 정부는 치안개선을 국정 주요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경찰조직 개편 및 경찰관 수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음.

### 3. 국제관계

#### □ 적극적인 역내 지역통합기구 참여를 통한 경제협력 증진 노력 지속

- 페루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안데스공동체(CAN) 등의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역내 지역통합 강화와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태평양동맹은 2012년에 결성된 페루·멕시코·콜롬비아·칠레 등 4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이며, 2017년 6월에 호주·캐나다·뉴질랜드·싱가포르 4개국과 준회원국 가입협상 개시를 발표하였으며, 2018년 6월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임.
  - 안데스공동체는 1969년에 설립된 경제협력체로,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가 회원국임.
- 페루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TPP\*에서 미국이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페루는 중국 주도의 RCEP 참여의사를 표명한 바 있음.

\* TPP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 무역협정으로, 2015년 10월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으나,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 선언을 하였음(참여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멕시코, 페루, 칠레, 브루나이).

- 미국의 탈퇴로 동력을 잃었던 TPP는 나머지 11개국이 2018년 3월 8일 칠레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을 체결하여 재탄생 하였으며, 실제 발효는 2019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 CPTPP는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발효요건을 기존 TPP대비 완화하였으며, 신규 회원국의 추가가입 조항을 단순화하는 등 최신 무역규범을 반영하였음.

#### □ 양자간 FTA 체결 적극 추진

- 페루는 미국(2009년 발효), 중국(2010년), 한국(2011년), 유럽연합(2013년)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 FTA를 체결하여 양자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18년 2월 호주와 FTA를 체결하였으며, 인도·터키·엘살바도르 등과도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등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트럼프 정부의 미국 최우선주의 (America First)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페루 양자간 FTA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정부의 1.7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추진에 따라 구리 등 광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페루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액 규모가 매우 낮은 점 등을 감안시 페루는 최근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17년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페루에 대한 승인금액 39.4억 달러 (단기 16.0억 달러, 중장기 23.4억 달러) 중 연체액은 1.9백만 달러에 불과함.
- 과거 과중한 외채로 8차례 파리클럽과의 채무재조정을 경험한 바 있으나, 2005년 및 2007년에 파리클럽 채무 중 45억 달러를 조기상환하여 채권자 신뢰 회복을 도모하였고, 1996년을 마지막으로 20년 이상 채무재조정은 없는 상태임.

### 2. 국제시장평가

#### □ OECD, 3등급 유지

- OECD는 2008년 페루 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현재 까지 3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 OECD 국가신용도 평가 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3등급으로 결정되었음.
- 2008년 OECD는 페루의 높은 경제성장, 무역상대국 다변화, FDI 유입 증대,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등을 고려하여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조정함.
- 페루는 국제신용평가 3개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인 A3 또는 BBB+ 등급을 부여받고 있어 양호한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등급전망은 국제신용평가 3개사 모두 'Stable'임.
- 2014년 Moody's는 경제성장 지속, 낮은 공공채무 수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페루의 신용등급을 Baa2에서 A3로 두 단계 상향조정하였음.
- 2013년 S&P 및 Fitch는 페루 정부의 지속적인 외채관리 노력, 투자 증가 등을 감안하여 BBB에서 BBB+로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음.

#### □ 해외차입능력 양호

- 페루는 경상·재정수지 적자 보전 등을 위해 순조롭게 채권을 발행하고 있고, 필요시 자유로운 차입시장 접근이 가능한바, 해외차입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페루는 2017년 7~8월 31억 달러 규모의 솔(sol)화 표시채권(14년 만기)을 성공적으로 발행하는 등 투자자는 페루 국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 (2017.10)	3등급 (2016.10)
Moody's	A3 (2017. 8)	A3 (2014. 7)
Fitch	BBB+ (2018. 3)	BBB+ (2017. 9)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63년 4월 1일 (북한과는 1988년 11월 21일 수교)
- 주요 협정: 사증면제협정(1982),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1984), 문화협정(1988), 투자증진및보호협정(1994), 관광협력협정(2003), 범죄인인도조약(2005), 자유무역협정(2011), 운전면허상호인정협정(2013), 무상원조협정(2013), 이중과세방지협약(2014), 형사사법공조조약(2016)
- 해외직접투자현황
  - 우리나라의 對페루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7년 12월말 누적 기준 62건, 24.5억 달러 수준이며, 광업이 20.0억 달러(전체의 96.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교역규모
  - 우리나라-페루간 FTA가 2011년에 발효되어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2004년)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FTA 체결국임.
  - 2017년 기준 페루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지역 제6위 수출대상국이자 제4위 수입대상국임.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이며, 수입품은 납, 아연, 구리 등임.

<표 4> 한·페루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주요 품목
수 출	1,392	1,217	1,155	914	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
수 입	1,433	1,136	1,294	2,133	납, 아연, 구리 등
교역규모	2,825	2,353	2,449	3,047	-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 의견

- 페루는 2017년 2.5%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2018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재해복구 사업 및 인프라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3% 후반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수년간 비교적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2.8%의 물가상승률을 시현하며, 정부의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였음. 2018년에도 물가상승률이 1% 중반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상승률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14년 이후 재정수지는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2017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 수준으로 크지 않음. 2018년에는 정부의 인프라 구축 관련 비용 지출 증가 등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까지는 상품수지 적자, 매년 100억 달러의 소득수지 적자로 인해 경상수지는 GDP 대비 -4% 수준의 적자를 지속하였으나, 2017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적자규모가 -1% 중반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2018년에도 경상수지 적자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OECD 3등급, 국제신용평가기관 A3 또는 BBB+ 수준의 신용도 유지,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및 해외차입능력 등을 감안시 페루에 대한 국제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책임조사역 이자호 (☎02-6255-5705)

E-mail: leejaho@koreaexim.go.kr